

클린스만호 A매치 상대 우루과이에 수아레스 빠져

등록 2023.03.03 14:08:56

이강인과 신경전 발베르데 합류



[알라이얀(카타르)=뉴스is] 조성우 기자 = 24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1차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 이강인이 태클을 당해 넘어지고 있다. 2022.1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스is]안경남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의 3월 A매치 상대인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이 한국 원정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우루과이축구협회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A매치 기간 한국, 일본 원정에 나설 34명의 예비 명단을 공개했다.

우루과이는 오는 24일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 뒤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만난다.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 이후 약 4개월 만의 재대결이다.

당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겼다.

예비 명단에는 루이스 수아레스(그레미우),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 디에고 고딘(벨레스 사르스필드) 등 베테랑들이 대거 빠져 있다.

또 토트넘 홋스퍼에서 손흥민과 한솔밥을 먹는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타쿠르도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제외됐다.

대신 이강인과 카타르월드컵 경기 도중 신경전을 벌인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는 승선했다.

또 김민재의 나폴리 동료인 마티아스 올리베라를 비롯해 다윈 누녜스(리버풀), 파쿤도 펠리스트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로날드 아라우호(바르셀로나) 등이 합류했다.

우루과이는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실패한 디에고 알론소 감독과 결별한 뒤 새 사령탑을 찾고 있다.

이번 한국, 일본 원정에는 마르셀로 브롤리 20세 이하(U-20) 대표팀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는다.

한국은 최근 벤투의 후임으로 선임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3월 A매치를 지휘한다.

미국에 머무는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중 입국해 A매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은 24일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치른 뒤 서울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